



목차

Intro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책	해설 책
2025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정을선전」	P.014	P.006
2025학년도	수능 장석남, 「배를 밀며」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P.016	P.012
2025학년도	수능 이청준, 「배짚을 주제로 한 변주곡」	P.020	P.019
2025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갑민가」 / 작자 미상, 사설시조	P.022	P.024

PART 1 현대시

2025학년도	6평 이기철, 「청산행」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P.026	P.032
2024학년도	6평 조지훈, 「맹세」 / 오규원, 「봄」	P.028	P.036
2023학년도	수능 유치환, 「채진」 / 나희덕, 「음지의 꽃」	P.030	P.040
2023학년도	6평 신동엽, 「향아」 / 기형도, 「전문가」	P.032	P.044
2022학년도	9평 오장환, 「중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P.034	P.047
2022학년도	6평 김기림, 「연륜」 / 김광규, 「대장간의 유희」	P.036	P.051
2021학년도	수능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P.038	P.054
2021학년도	9평 김수영, 「사경」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P.040	P.057
2021학년도	6평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P.042	P.060
2020학년도	수능 윤동주, 「바람이 불어」 / 김기택, 「새」	P.044	P.064
2020학년도	9평 김영랑, 「청명」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P.046	P.067
2020학년도	6평 김광균, 「추일서정」 / 오규원, 「하늘과 들맹이」	P.048	P.070

PART 2 고전시가

2025학년도	9평 정철, 「풍파에 일렁이던 배～」 / 정철, 「심의산 서너 바퀴～」 / 조준성, 「호아곡」	P.052	P.076
2024학년도	수능 김인겸, 「일동장유가」 / 유박, 「화암구곡」	P.054	P.080
2024학년도	9평 정철, 「성산별곡」 / 작자 미상,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P.056	P.085
2023학년도	9평 이현보, 「어부단가」 / 박인로, 「소유정가」	P.058	P.090
2022학년도	수능 정훈, 「탄궁가」 / 위백규, 「농가」	P.060	P.094
2022학년도	9평 허난설헌, 「규원가」 /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P.062	P.098
2021학년도	6평 정철, 「관동별곡」	P.064	P.102
2020학년도	9평 정극인, 「상춘곡」 / 이이, 「고산구곡가」	P.066	P.106

PART 3 현대소설

2025학년도	9평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P.070	P.114
2025학년도	6평 임철우, 「아버지의 땅」	P.072	P.118
2024학년도	수능 박태원, 「골목 안」	P.074	P.123
2024학년도	9평 양귀자, 「원미동 시인」	P.076	P.128
2024학년도	6평 최명익, 「무성격자」	P.078	P.133
2023학년도	수능 최명희, 「쓰러지는 빛」	P.080	P.138
2023학년도	9평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P.084	P.143
2023학년도	6평 채만식, 「미스터 방」	P.086	P.147
2022학년도	수능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P.088	P.151
2022학년도	6평 홍성원, 「무사와 악사」	P.090	P.155
2021학년도	수능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P.092	P.159
2021학년도	9평 이기영, 「고향」	P.094	P.164
2021학년도	6평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P.096	P.169
2020학년도	수능 김소진, 「자전거 도둑」	P.098	P.173
2020학년도	9평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P.100	P.177
2020학년도	6평 박경리, 「토지」	P.102	P.182

PART 4 고전산문

			문제 책	해설 책
2025학년도	9평	수산, 「광한루기」	P.106	P.188
2025학년도	6평	작자 미상, 「이대봉전」	P.108	P.192
2024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김원전」	P.110	P.197
2024학년도	9평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P.112	P.202
2024학년도	6평	작자 미상, 「상사동기」	P.114	P.207
2023학년도	수능	조위한, 「최척전」	P.116	P.212
2023학년도	9평	작자 미상, 「정수정전」	P.118	P.217
2023학년도	6평	작자 미상, 「소헌성록」	P.120	P.222
2022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박태보전」	P.122	P.227
2022학년도	9평	작자 미상, 「배비장전」	P.124	P.232
2022학년도	6평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P.126	P.236
2021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최고운전」	P.128	P.241
2021학년도	9평	작자 미상, 「심청전」	P.130	P.246
2020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P.132	P.251
2020학년도	9평	작자 미상, 「장끼전」	P.134	P.256
2020학년도	6평	작자 미상, 「조웅전」	P.136	P.260

PART 5 갈래 복합

2025학년도	9평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각」 / 유본예, 「이문원노종기」	P.142	P.268
2025학년도	6평	작자 미상, 「우부가」 / 성현, 「타농설」	P.146	P.274
2024학년도	수능	김종길, 「문」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유한준, 「잇음을 논함」	P.150	P.279
2024학년도	9평	박용래, 「월훈」 / 김영랑, 「연 1」 / 서영보, 「문의당기」	P.154	P.286
2024학년도	6평	권호문, 「한거십팔곡」 / 김낙행, 「기취서행」	P.158	P.292
2023학년도	수능	이황, 「도산십이곡」 / 김득연, 「지수정가」 / 김훈, 「겸재의 빛」	P.162	P.297
2023학년도	9평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신경림, 「길」 / 백석, 「편지」	P.166	P.303
2023학년도	6평	황희, 「사시가」 / 조우인, 「자도사」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P.170	P.309
2022학년도	수능	이육사, 「초가」 / 김관식, 「거산호 2」 / 이옥, 「담초」	P.174	P.315
2022학년도	9평	오영수, 「갯마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P.178	P.320
2022학년도	6평	김시습, 「유객」 / 김광욱, 「율리유곡」 / 김용준, 「조어삼매」	P.182	P.326
2021학년도	수능	정철, 「사미인곡」 / 신희, 「창 빛기 워석버석~」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P.186	P.332
2021학년도	9평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홍」 / 이덕무, 「우언」	P.190	P.338
2021학년도	6평	작자 미상, 「전우치전」 / 최동훈, 「전우치」	P.192	P.344
2020학년도	수능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권근, 「어촌기」	P.196	P.351
2020학년도	6평	안서우, 「유원십이곡」 / 성현, 「조용」	P.200	P.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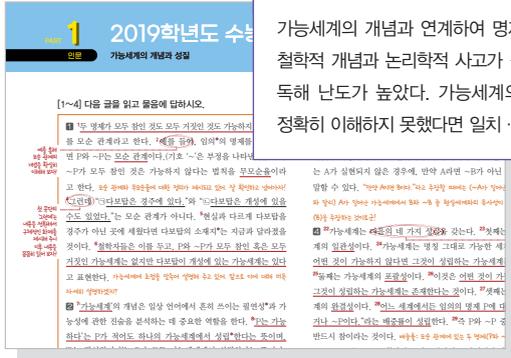
시즌 2

4월~5월

'홀수 옛 기출 분석서'로 평가원의 핵심 출제 요소를 폭넓게 학습

▶ **박광일의 VIEW POINT**

가능세계의 개념과 연계하여 명제 간의 관계를 다룬 지문으로, 철학적 개념과 논리학적 사고가 결합된 이해를 요구하여 지문의 독해 난도가 높았다. 가능세계의 특성과 명제의 성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홀수 옛 기출 분석서 구성

- 박광일 선생님이 엄선한 평가원 필수 옛 기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각 지문을 풀어 보아야 하는 이유, 지문과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홀수 옛 기출 분석서 활용법

- 시즌 1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옛 기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 평가원에서 반복적으로 묻는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평가원의 관점을 체화합니다.

시즌 3

6월~8월

'홀수 기출 분석서' 2회독으로 취약 지문 영역 파악 및 집중 보완
- '홀수 옛 기출 분석서'도 취약 영역 강화에 활용 가능

취약 지문 영역 순위	독서	문학
1순위	과학·기술	고전산문
2순위	주제 복합	갈래 복합
3순위	사회	고전시가

(예시) 독서 2회독: '과학·기술' 영역 전 지문 기출 분석 → '주제 복합' 영역 전 지문 기출 분석 → '사회' 영역 전 지문 기출 분석

홀수 기출 분석서 2회독 방법

- '홀수 약점 CHECK 모의고사'의 약점 CHECK 분석표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지문 영역을 파악하여 집중 학습합니다.
- 독서에서는 지문의 구조도를 그리며 정보를 체계화 하는 훈련을, 문학에서는 영역별 핵심 출제 요소 및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훈련을 권장합니다.

시즌 4

9월~11월

'홀수 기출 분석서' 3회독으로 취약 문제 유형 파악 및 집중 보완
- '홀수 옛 기출 분석서'도 취약 유형 강화에 활용 가능

취약 문제 유형 순위	독서	문학
1순위	구체적 상황에 적용	작품 내용 이해
2순위	세부 내용 추론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3순위	세부 정보 파악	표현상, 서술상 특징 파악

(예시) 독서 3회독: 전 지문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 문제만 기출 분석 → 전 지문의 '세부 내용 추론' 문제만 기출 분석 → 전 지문의 '세부 정보 파악' 문제만 기출 분석

홀수 기출 분석서 3회독 방법

- '홀수 약점 CHECK 모의고사'의 약점 CHECK 분석표를 토대로 수능 전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집중 학습합니다.
- 수능 직전에는 최근 3~5개년 수능 및 올해 시행된 6월·9월 모의평가를 다시 분석합니다.



구성과 특징

- 첫째** 2020학년도~2025학년도 평가원 기출 전 지문, 전 문항을 수록하여 최신 출제 경향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문제 책에서는 지문 분석 장치를 채워 가며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책에서 분석한 내용을 해설 책과 비교해 가며 효율적인 지문 접근법과 문제 풀이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셋째** 문항별로 제시된 문제 유형을 통해 취약한 문제 유형을 진단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정답률 표시를 통해 체감 난이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넷째** 해설책의 INTRO에서는 박광일 선생님의 2025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한 총평, 지문별 CHECK POINT 및 문제별 유형 분석을 통해 2026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전략을 제시합니다.

INTRO 2025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심화 분석

✓ 박광일의 CHECK POINT

[1~4] 작자 미상, 「정음선전」

최근 수능에서 고전소설 지문은 대체로 EBS 연계 작품이 출제되고 있어, 2023학년도 수능의 「최척전」, 2024학년도 수능의 「김원전」, 2025학년도 수능의 「정음선전」 모두 EBS 연계 작품이다. 익숙한 작품이지만, 길래의 특성상 등장인물이 많고 인물의 지칭어도 다양해서 초반부를 꼼꼼히 읽지 않았다면,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어, 실제 시험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지문에 제시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 그럴수록 차분하게 인물 간의 관계와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야 해. 특히, [앞부분의 줄거리]와 같이 줄거리를 요약한 부분에는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읽어야겠지. 평소에 기출 작품과 EBS에 수록된 고전소설 지문들을 꼼꼼히 분석하며 준비해 보자.

저자인 박광일 선생님이 2025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각 지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꼭 짚어서 설명해 줍니다. 평가원의 출제 경향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수능 국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유형 분석

여러 작품을 (가)~(다)로 묶어 출제된 경우 작품 간의 공통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해, 우선 선지에 등장하는 문학 개념어의 의미는 사전에 학습해 두어야 하고, 선지에 언급된 내용이 지문의 어디에 나타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으니, (가)~(다) 중 한 작품이라도 포함하지 않으면 답이 될 수 없어. 이러한 경우 하나의 선지를 두고 (가)~(다) 모두를 확인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가)~(다) 중 한 작품을 정해서 ①번에서 ⑤번 선지까지 훑어보며 답이 아닌 것들을 지워 나가는 방식이 좋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에 출제된 각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문제 풀이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자주 틀리거나 확신 없이 풀어 낸 문제 유형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 책

최신 6개년 평가원 기출 문학 전 지문, 전 문항 + 지문 분석 활동 수록

2024학년도 수능 제1회 P279

김동진, 조영남, 「가치가 담을 남을 때」, 유한준, 「잊음을 논함」

1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가) 회자와 대상의 관계: 쇠락한 역사의 흔적이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상황? **회자** **대상**

(나) 회자와 대상의 관계: 수양 가치가 을 넘는 의미를 상징하는 사람

상황? **회자** **대상**

2 지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다) **1** 내가 에게 있는 것과 잊지 않는 것을 이라고 생각하는데에 **질문함**

2 모든 과 근심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고 함

3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여 인 것임을 잊고 인 것임을 잊지 못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함

2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회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가)는 동일한 객체임,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사상을 전개한다.
-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회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나)는 사물을 건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가장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전」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원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두리키둥의 뜰에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어 갈래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1 지문 분석 장치 채우기

시간의 제약 없이 두지 않고 지문을 차근차근 읽은 후, 지문 분석 장치를 활용해 지문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자. 2회독 이상에서는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인물 관계도를 그린 후 해석결과 비교해 보자.

2 문제 풀기

분석한 지문과 연결하여 모든 선지의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 보자. 이때 정답 혹은 오답의 근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를 책이나 별도의 노트에 적어가며 분석하면 더욱 효과적이어.

나만의 학습 PLAN

- 각 회독은 하루치 학습량을 일정하게 정해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회독은 최신 시험에 수록된 지문부터 분석하고, 2회독은 취약 지문 영역, 3회독은 취약 문제 유형을 우선 분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홀수 약점 CHECK 모의고사'의 약점 CHECK 분석표를 활용하면 취약 지문 영역 및 취약 문제 유형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목표 학습 기간				실제 학습 기간					
1회독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2회독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3회독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Intro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한 날짜		
				1회독	2회독	3회독
2025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정을선전」				
2025학년도	수능	장석남, 「배를 밀며」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2025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갑민가」 / 작자 미상, 사설시조				

PART 1			현대시	학습한 날짜		
				1회독	2회독	3회독
2025학년도	6월 모평	이기철, 「청산행」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2024학년도	6월 모평	조지훈, 「맹세」 / 오규원, 「봄」				
2023학년도	수능	유치환, 「채전」 / 나희덕, 「음지의 꽃」				
2023학년도	6월 모평	신동엽, 「항아」 / 기형도, 「전문가」				
2022학년도	9월 모평	오장환, 「중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2022학년도	6월 모평	김기림, 「연료」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2021학년도	수능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2021학년도	9월 모평	김수영, 「사령」 / 김혜순,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2021학년도	6월 모평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2020학년도	수능	윤동주, 「바람이 불어」 / 김기택, 「새」				
2020학년도	9월 모평	김영랑, 「청명」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2020학년도	6월 모평	김광균, 「추일서정」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PART 2			고전시가	학습한 날짜		
				1회독	2회독	3회독
2025학년도	9월 모평	정철, 「풍파에 일렁이던 배」 / 정철, 「심익산 서너 바퀴」 / 조준성, 「호아곡」				
2024학년도	수능	김인경, 「일동장유가」 / 유박, 「화암구곡」				
2024학년도	9월 모평	정철, 「성산별곡」 / 작자 미상,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2023학년도	9월 모평	이현보, 「어부단가」 / 박인로, 「소유정가」				
2022학년도	수능	정훈, 「탄궁가」 / 위백규, 「농가」				
2022학년도	9월 모평	허난설헌, 「규원가」 /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2021학년도	6월 모평	정철, 「관동별곡」				
2020학년도	9월 모평	정극인, 「상춘곡」 / 이이, 「고산구곡가」				

PART 3			현대소설			학습한 날짜		
			1회독	2회독	3회독			
2025학년도	9월 모평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2025학년도	6월 모평	임철우, 「아버지의 땅」						
2024학년도	수능	박태원, 「골목 안」						
2024학년도	9월 모평	양귀자, 「원미동 시인」						
2024학년도	6월 모평	최명익, 「무성격자」						
2023학년도	수능	최명희, 「쓰러지는 빛」						
2023학년도	9월 모평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2023학년도	6월 모평	채만식, 「미스터 방」						
2022학년도	수능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2022학년도	6월 모평	홍성원, 「무사와 악사」						
2021학년도	수능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2021학년도	9월 모평	이기영, 「고향」						
2021학년도	6월 모평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2020학년도	수능	김소진, 「자전거 도둑」						
2020학년도	9월 모평	이청준, 「자서전을 쓰십시오」						
2020학년도	6월 모평	박경리, 「토지」						

PART 4			고전산문			학습한 날짜		
			1회독	2회독	3회독			
2025학년도	9월 모평	수산, 「광한루기」						
2025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이대봉전」						
2024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김원전」						
2024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2024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상사동기」						
2023학년도	수능	조위한, 「최척전」						
2023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정수정전」						
2023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소현성록」						
2022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박태보전」						
2022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배비장전」						
2022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2021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최고운전」						
2021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심청전」						
2020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2020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장끼전」						
2020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조웅전」						

PART 5			갈래 복합			학습한 날짜		
			1회독	2회독	3회독			
2025학년도	9월 모평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 / 유본예, 「이문원노종기」						
2025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우부가」 / 성현, 「타농설」						
2024학년도	수능	김종길, 「문」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유한준, 「잇음을 논함」						
2024학년도	9월 모평	박용래, 「월훈」 / 김영랑, 「연 1」 / 서영보, 「문의당기」						
2024학년도	6월 모평	권호문, 「한거십팔곡」 / 김낙행, 「기취서행」						
2023학년도	수능	이항, 「도산십이곡」 / 김득연, 「지수정가」 / 김훈, 「겸재의 빛」						
2023학년도	9월 모평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신경림, 「길」 / 백석, 「편지」						
2023학년도	6월 모평	황희, 「사시가」 / 조우인, 「자도사」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2022학년도	수능	이육사, 「초가」 / 김관식, 「거산호 2」 / 이육, 「담초」						
2022학년도	9월 모평	오영수, 「갯마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2022학년도	6월 모평	김시습, 「유객」 / 김광옥, 「율리유곡」 / 김용준, 「조아삼매」						
2021학년도	수능	정철, 「사미인곡」 / 신희, 「창 바괴 워석버석~」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2021학년도	9월 모평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흥」 / 이덕무, 「우언」						
2021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전우치전」 / 최동훈, 「전우치」						
2020학년도	수능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권근, 「어촌기」						
2020학년도	6월 모평	안서우, 「유원십이곡」 / 성현, 「조용」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때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문왈

“충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충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견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인인가 구녕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한의 빛 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두명**을 씻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뵈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 왈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하며 왈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았나니까?”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이 옥줄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충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줄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충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문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충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충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면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왕친** 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걸박하여 땅에 꿰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므로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우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리하운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연이 흥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 지문을 세 장면으로 나누고, 장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장면 01	총렬부인 대신 시비 금섬이 죽은 일로 _____ 는 월매를 문초하고, 전장에서 호첩이 전한 _____ 를 통해 사연을 알게 된 승상(정을선)이 달려와 총렬부인을 구함
장면 02	승상이 사건과 관계된 이들을 불러 조사하자 정렬부인의 시비 _____ 이 총렬부인을 모함했음을 자백하고, 사실을 알게 된 왕비는 자책하며 자결하려 하지만 _____ 이 만류함
장면 03	승상은 _____ 의 죄를 묻기 위해 황상께 모든 사실을 아뢰

1. ㉠, ㉡과 관련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2.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뒷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①	원수	중군장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②	승상	월매	A가 B에게 총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묻음.
③	옥졸	금연	B가 A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음.
④	옥졸	승상	A가 B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⑤	금연	승상	B가 A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 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 ①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승상이 총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 ③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총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희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PART 1

현대시

이기철, 「청산행」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

»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가)

화자와 대상의 관계	세속을 떠나 _____으로 들어가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사람
상황?	자연의 세계인 청산에 들어왔지만, _____를 내려다 보며 일상의 것들을 떠올림 → _____을 버리고 순결해진 때까치들처럼 세속을 잊고 들거미줄과 돌들 같은 자연과 함께 누워 잠들고자 함

(나)

화자와 대상의 관계	차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 '나'는 '나'일 뿐이며 차를 마시는 _____이 내가 아는 '나'에 대한 모든 것임을 깨달은 '나'
상황?	'나'는 저녁에 차를 마시며, 이 행위가 담담한 사실임을 깨달음 → 세상의 일들이 누구의 시킴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차를 마시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함 → 차를 마시는 _____과 _____이 내가 아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인식함

INTRO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책 PAGE	해설 책 PAGE	지문명	문제 번호 & 정답					
P.014	P.006	작자 미상, 「정을선전」	1. ②	2. ④	3. ①	4. ④		
P.016	P.012	장석남, 「배를 밀며」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5. ④	6. ⑤	7. ②	8. ②	9. ①	10. ①
P.020	P.019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11. ④	12. ③	13. ⑤	14. ④		
P.022	P.024	작자 미상, 「갑민가」 / 작자 미상, 사설시조	15. ③	16. ⑤	17. ②			

박광일의

2025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총평

2025학년도 문학은 매우 어려웠던 2024학년도 문학에 비해 특별히 어려운 작품이나 문제는 없었다. EBS 연계는 50% 정도를 유지했지만, 비연계 작품도 평이한 수준이라 큰 영향력은 없었다. 18번 문항(본책 1번)이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의 정황과 내막을 추론해야 하는 문제라 비교적 오답률이 높았으나 상대적 결과일 뿐, 기출 분석 훈련을 충실히 해 왔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6년간 수능 중에서 가장 쉬운 문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보면 2026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문학은 2025학년도보다는 확실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025학년도 수능처럼 문학이 어렵지 않게 출제되면 어떤 갈래에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갈래에 대한 공부에 일정한 비중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특정 갈래에 편중된 공부를 한다면 2026학년도 수능에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서 어렵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년도 수능 문학이 쉬울수록 다음 해의 문학 공부는 어렵게 해야 한다. 역대 기출에서 어려웠던 작품과 문항들을 반복적으로 풀고 분석함으로써 높아질 수 있는 난도에 대비해야 한다.

최신 기출 경향을 읽어내기에 적합한 분량인 최근 6년간의 기출을 반복해서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 기출이 요구하는 사고 과정을 체화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 부터 시작하기를 바란다.



☑ 박광일의 CHECK POINT

[1~4] 작자 미상, 「정을선전」

최근 수능에서 고전소설 지문은 대체로 EBS 연계 작품이 출제되고 있어. 2023학년도 수능의 「최척전」, 2024학년도 수능의 「김원전」, 2025학년도 수능의 「정을선전」 모두 EBS 연계 작품이야. 익숙한 작품이지만, 갈래의 특성상 등장인물이 많고 인물의 지칭어도 다양해서 초반부를 꼼꼼히 읽지 않았다면,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어. 실제 시험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지문에 제시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 그럴수록 차분하게 인물 간의 관계와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야 해. 특히, [앞부분의 줄거리]와 같이 줄거리를 요약한 부분에는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읽어야겠지. 평소에 기출 작품과 EBS에 수록된 고전소설 지문들을 꼼꼼히 분석하며 준비해 보자.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총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옥중 시신이 발견된 것에 관해 시비 월매를 문초하는 왕비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 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 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 총렬부인을 구하기 위해 전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정을선 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매를 맞으면 서도 총렬부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는 월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며 문왈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견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톱 곡 왈 구덩이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총렬부인을 보고 슬퍼하는 정을선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녕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한의 빗발 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두평을 씻겨 주소서.” 남편에게 누명을 벗겨 달라고 요청하는 총렬부인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장면 01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뵈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날 낱이 이르시되 총렬부인을 벌한 사연을 아들 정을선에게 말하는 왕비 승상 왈

㉠ “이 일은 소재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하며 왈

㉡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총렬부인을 모함한 이를 찾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승상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총렬부인을 음해한 죄를 스스로 알고 목숨을 끊은 복록 하릴없어* 옥줄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줄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조건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문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사건을 조사하는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떠는 정렬부인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북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



유형 분석

이 문제는 밑줄 친 인물의 말과 관련하여 사건의 앞뒤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밑줄 앞뒤의 문맥과 대화 상황에 제시된 인물의 심리를 먼저 파악한 뒤, 선지에 제시된 주체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나누어 정리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

1. ㉠,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 ㉡: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았느냐?"

정답풀이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에서 승상이 '이미 아는 바'라고 한 '이 일'은 총렬부인이 위기에 처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승상은 집에 도착하여 어머니에게 '사연을 낱낱이' 듣기 전에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고 총렬부인이 모함을 당하여 옥에 갇힌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뒤에 승상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볼 때 ㉠이 발화된 시점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는 정렬부인이 총렬부인을 포함한 사건의 진상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으므로, 승상이 말한 '이미 말한 바'와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었군.

승상(정울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고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묻는다. 이때 승상이 크게 놀란 것은 편지에 총렬부인이 위기에 처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며, 이때 승상이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왕비가 승상을 반기며 '사연을 낱낱이 이'를 때는 왕비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기 전임을 감안하면, 이때의 '사연'은 총렬부인을 벌한 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상이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승상이 편지를 읽고 전장에서 서둘러 달려와 월매와 총렬부인을 구한 행동을 볼 때, 승상은 총렬부인의 결백함을 믿으며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갔다'는 말이 거짓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승상이 왕비에게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았는지(㉡), 즉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묻는 것은 왕비가 거짓된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추적하는 것을 통해 사연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았느냐는 승상의 질문(㉡)에 왕비는 '사촌 오라비가 이르'는 말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왕비에게 사촌 오라비가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에 대해 왕비가 사촌 오라비(복록)의 제보로 알았다고 대답하자, 승상은 복록을 찾는다. 이때 복록은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복록은 왕비에게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갔다는 거짓말을 한 죄에 대해 심리적 중압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문제적 문제

• 1-③번

학생들이 정답 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지는 ③번이다.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았느냐(㉡)?"(㉡)라는 승상의 말의 의도와 왕비가 승상에게 말한 '사연'의 내용을 연결 짓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에서 승상이 말한 내용, 즉 '그놈'이 총렬부인의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 이전에는 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이 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뒤의 내용을 통해 '그놈'이 누구인지, 승상이 왜 갑자기 '그놈'에 대한 말을 꺼내는지 추론해야 한다.

먼저 ㉡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승상은 전장에서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고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묻고, 중군장에게 군사들을 맡기고 '필마로 달려'와 왕비에게 문초를 당하고 있는 월매를 구하고, 그에게 총렬부인의 위치를 묻는다. 전장에서 바빠 달려온 승상이 총렬부인의 위치부터 묻는 것을 볼 때, 승상은 총렬부인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왕비가 월매를 문초하던 이유는 벌하려고 옥에 가둔 총렬부인은 사라지고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왕비가 승상을 만나 '낱낱이 이르'는 '사연'은 바로 총렬부인을 옥에 가둔 이유이며, 이는 뒷부분에서 금언이 밝힌 '제가 남북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 등과 종합하여 볼 때, 총렬부인이 방에 외간 남자를 들였다는 오해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승상이 이에 대해 '이미 아는 바'라고 답한 것과 승상이 구덩이에 있는 총렬부인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총렬부인을 구한 점을 고려하면, 승상은 왕비와 달리 총렬부인의 결백을 믿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상이 ㉡과 같이 물은 것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즉 총렬부인이 외간 남자를 방에 들였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승상이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이처럼 인물의 말에 담긴 의도와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 간의 관계와 앞뒤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정답률 분석

	정답	매력적 오답		
①	②	③	④	⑤
7%	61%	20%	5%	7%

PART 1

현대시

문제 책 PAGE	해설 책 PAGE	지문명	문제 번호 & 정답			
P.026	P.032	이기철, 「청산행」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1. ⑤	2. ④	3. ③	4. ③
P.028	P.036	조지훈, 「맹세」 / 오규원, 「봄」	1. ④	2. ②	3. ⑤	4. ③
P.030	P.040	유치환, 「채전」 / 나희덕, 「음지의 꽃」	1. ①	2. ④	3. ②	4. ③
P.032	P.044	신동엽, 「향아」 / 기형도, 「전문가」	1. ②	2. ④	3. ①	
P.034	P.047	오장환, 「종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1. ②	2. ④	3. ⑤	4. ③
P.036	P.051	김기림, 「연륜」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1. ④	2. ⑤	3. ②	
P.038	P.054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1. ⑤	2. ②	3. ④	
P.040	P.057	김수영, 「사령」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1. ⑤	2. ②	3. ①	
P.042	P.060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1. ③	2. ④	3. ⑤	
P.044	P.064	윤동주, 「바람이 불어」 / 김기택, 「새」	1. ④	2. ②	3. ④	
P.046	P.067	김영랑, 「청명」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1. ②	2. ③	3. ④	
P.048	P.070	김광균, 「추일서정」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1. ⑤	2. ①	3. ④	

이기철, 「청산행」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공간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세속의 일상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내면의 갈등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 「**관습들**」
속세에서의 삶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자연과의 동화
 「맨살 ㉣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화자와 대상의 관계	세속을 떠나 청산 으로 들어가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사람
상황?	자연의 세계인 청산에 들어왔지만, 인가 를 내려다보며 일상의 것들을 떠올림 → 야성 을 버리고 순결해진 때까치들처럼 세속을 잊고 들거미줄과 돌들 같은 자연과 함께 누워 잠들고자 함

이것만은 챙기자

*인가: 사람이 사는 집.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절대자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절대자와의 관계 회의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어빠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경험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함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경험적 사실로만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의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

>>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화자와 대상의 관계	차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 '나'는 '나'일 뿐이며 차를 마시는 사실 이 내가 아는 '나'에 대한 모든 것임을 깨달은 '나'
상황?	'나'는 저녁에 차를 마시며, 이 행위가 담담한 사실임을 깨달음 → 세상의 일들이 누구의 시킴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차를 마시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함 →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 이 내가 아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인식함

이것만은 챙기자

- *고즈넉하다: 고요하고 아늑하다.
- *달갑다: 거리낌이나 불만이 없어 마음이 흡족하다.